

내고장 일꾼



강인규 나주시장은 12일 오전 10시 다목적체육관에서 열리는 나주농민추수대회 한마당행사에 참석한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12일 오후 2시 30분 국민일보 빌딩에서 열리는 제18회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시상식에 참석한다.



최형식 담양군수는 12일 오후 3시 군청 접견실에서 열리는 천년의 향기 개발 용역 중간보고회에 참석한다.

무안경찰 외국인 밀집지역 순찰

무안경찰서는 최근 외국인으로 구성된 치안서포터즈 및 결혼이주여성 치안봉사단과 함께 연말연시 특별 치안활동을 본격적으로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치안활동은 내년 1월 2일까지 총 41일간 진행되며 연말연시 내·외국인 모두가 평온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외국인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합동 순찰을 전개하고, 경찰 치안활동에 외국인도 함께하는, 치안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장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행사에 참석한 베트남 유학생은 “지나해부터 치안서포터즈 활동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는데 참여 할 때마다 보람과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혔다.

이들진 경찰서장은 “연말연시 평온한 치안분위기를 조성하고, 외국인 범죄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구독신청 및 기사제보

- 본 사 010-4601-5323
- 나 주 010-5617-2605
- 010-3713-7458
- 합 평 010-3773-2522
- 영 광 010-8666-2882
- 화 순 010-3666-5888
- 장 성 010-3666-1300
- 담 양 010-4154-8277
- 장 흥 010-3613-6114

화순 내년도 국비 총 1,701억 확보

치유숲단지 조성 등 84건 지역현안 사업 탄력
구충곤 군수 중앙부처·국회 등 방문 설득 성과

화순군은 내년도 정부예산에 총 84건의 지역현안사업비 1,701억원을 확보했다.

11일 화순군에 따르면 최근 국회의 내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화순치유숲단지 조성사업 5억원, 동면·송광간 국도 시설개량 10억원, 동면·주암간

국도 시설개량 10억원 및 다국 재해 위험지구 정비 12억원 등 총 40억원이 신규 반영 또는 증액됐다고 밝혔다.

특히 98억원 규모의 화순치유숲단지 조성사업은 화순전남대병원 인근에 의료, 건강 및 참살이 숲단지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내년에 기본 및 실시설계를 거쳐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또한, 화순 동면~순천 송광간 10억원과 화순 동면~순천 주암간 60억원의 국도 시설개량 사업비가 확보됨에 따라 전남 동남부권과의 연결 간선도로망 사업이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된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화순을 향정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총 180억원의 사업비로 시작하고, 도곡지구하

수관로 정비사업 277억원, 길성천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38억원도 본격 추진한다.

최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최우수 특구로 선정된 화순백신평구 활성화를 위한 국가백신제품화 기술지원센터 구축사업 213억원 중 11억원을 신규로 확보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구충곤 군수를 비롯한 직원들이 연초부터 기획재정부 등 중앙부처와 국회를 지속적으로 방문 설득하고, 서울사무소를 적극 활용하

여 소관 상임위는 물론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서 가능했다.

구충곤군수는 “연초부터 국비 확보를 위해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이처럼 많은 성과를 거둬 커다란 보람을 느낀다”면서 “다시 새로운 자세로 다양한 2020년도 지역현안사업을 발굴해서 올해보다 더 활기차게 국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서호령 기자



함평군은 최근 서울여대에서 열린 제7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정책대상을 수상한 가운데 이윤행 군수와 간부공무원이 상패를 들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함평군 제공

함평 제7회 한국정책대상 대상 수상

원스톱 민원처리제·농어가 수당 등 주민 삶의 질 향상

함평군은 최근 서울여대 5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제7회 한국정책대상 시상식에서 기초자치단체 부문 ‘정책대상’을 수상했다.

한국정책학회가 주관하는 이번 대상은 학회 정회원 5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지자체 정책을 대상으로 정책대상 선정위원회를 구성, 2차 평가와 토의를 거쳐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 각 1개 기관을 선정했다.

함평군은 민선7기 출범 5개월여 만에 원스톱 민원처리제 도입, 렌터카

등록 업무협약, 농·어촌버스 단일요금제, 전국 최초 농·어가 수당 월 10만 원 지급 등 지역현안을 단숨에 풀어내며 주민 삶의 질을 높였다는 평가다.

함평군은 최근 사회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주형 일자리’와 관련해 월야면 빛그린산단 인근 근로자용 주택 1만호 건설 등을 추진하며 지역발전의 초석을 다지고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실히 확보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윤행 군수는 “그동안 험 없이 달려온 노력이 이번 정책대상 수상으로 인정받는 것 같아 기쁨을 감출 수 없다”면서 “인구증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해결해야 할 현안이 무수히 산적해 있는 만큼 더욱 치밀한 군정으로 군민이 공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새한국정책학회는 주요대학교수, 공공연구소, 정부기관 등 6,000여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는 전국단위 학회로, 지자체의 우수한 정책사례와 기관장의 리더십을 공유하고자 2010년부터 한국정책대상을 시행하고 있다. /함평=윤예중 기자

장흥 2018 송년콘서트 개최

장흥군은 13일 오후 7시 장흥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군민과 함께하는 ‘2018 송년콘서트’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콘서트에는 김정호 8인조밴드, 군조, 타이퐁 등 국내 정상급 가수

들이 대거 출연한다. 장흥군이 주최하고 JK아트컴퍼니가 기획한 이번 공연은 지정좌석제로 운영된다.

관람료는 1층 2만원, 2층 1만원으로 개인당 5매까지 예매할 수 있다.

예매권은 5일부터 장흥문화예술회관에서 선착순 현장판매한다.

정종순 군수는 “가족과 연인이 함께 저물어는 한해 마무리로 송년 콘서트와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장흥=이옥현 기자

담양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 최우수상

유통 판촉·육성 높은 평가

담양군이 전남도가 선정한 2018년도 농산물 유통식품 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에 선정돼 9년 연속 수상권에 진입하는 영예를 안았다.

11일 군에 따르면 전남도가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18년도 농산물 유통·식품업무 평가’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해 900만 원의 시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평가에서 유통 판촉 등 종합분야와 쌀 판매 및 브랜드 쌀 육성, 산지유통 경쟁력 강화, 농식품산업 육성 등 4개 분야에서 9년 연속 높은 점수를 받아 좋은 성과를 얻었다.

담양군은 2011년 서울시 친환경 무

상급식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친환경 쌀의 최대 판로인 학교급식 납품에 발 빠르게 대처해 왔다.

그 결과로 성북구 학교 및 유치원 학교급식 친환경 쌀 납품을 시작으로 노원·마포·송파·양천·성북, 강북, 용산 등 서울시 12개 자치구에 146교 초·중·고등학교와 유치원에 ‘대슬맑은 담양 친환경 쌀’ 464t을 공급했다.

최형식 군수는 “대슬맑은 생애도시 담양의 청정한 자연과 위생 농업을 통해 소비자가 신뢰하는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고, 산지유통시스템 구축을 통해 유통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담양=장동원 기자



장성발전포럼은 최근 장성호 수변길 환경정화 활동을 펼쳤다. /장성군 제공

장성호 수변길 환경정화 활동

장성군은 최근 장성발전포럼과 농어촌공사와 함께 ‘장성호 수변길’과 ‘엘로우 출렁다리’ 주위에 있는 각종 생활폐기물과 부유쓰레기 약 5톤을 수거하는 환경정화활동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민간단체인 장성발전포럼이 장성호 주변의 부유쓰레기를 수거하기 위해 군에 청소차량 지원을 요청했고 군과 농어촌공사가 민간단체의 취지에 동참하며 이뤄졌다.

이들은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장

성호 수변길을 따라 생활폐기물을 줍고, 출렁다리와 주변 쓰레기도 정리했다.

‘장성호 수변길’은 장성호 선착장과 북이면 수성리를 잇는 7.5km의 트레킹길로, 호숫가에 조성된 1.23km 길이의 데크길과 자연 지형 그대로의 숲길로 산과 호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한편 장성호 수변길은 지난 2월 한국관광공사가 대한민국 대표 걷기길로 선정됐다. /장성=전일용 기자

클릭! 고향 소식



함평 비빔밥 어울림 한마당 열려

함평군은 최근 읍내 5일 시장에서 함평 생(生)비빔밥 어울림 한마당 축제를 성황리에 열렸다.

축제가 열린 5일 시장 일대는 하루 종일 문전성시를 이루며 북적거렸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이번 축제는 비빔밥 산업 발전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농가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모듬북 공연으로 시작을 알린 이번 행사는 이윤행 함평군수, 정철희 함평군의장 등이 참석했다. /함평=윤예중 기자



영광 생활체조 경연대회 개최

제3회 전남체조협회장배 생활체조경연대회가 최근 영광 예술의 전당 대공연장에서 성황리에 막을 내렸다.

전남체조협회가 주최하고 영광군체조협회가 주관한 이번 대회는 도내 14개 시·군 대표 선수와 임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대회 참가자들은 건강체조와 에어로빅스, 생활댄스 체조, 민속체조 및 수련체조, 기구체조 분야 등 총 4개 분야에 대해 기량을 선보였다. /영광=곽용순 기자



화순 2018 성탄트리 점등식

화순군은 최근 화순읍 교리 교차로 인근 국도변에 성탄트리 점등식으로 성탄트리가 환하게 불을 밝혔다.

구충곤 화순군수, 강순팔 군의회 의장, 강일원 화순경찰서장 등 기관단체장과 화순군기독교협의회 목회자, 신도 등이 함께한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군민 화합과 군의 번영을 기원했다.

이 날 점등식은 화순군기독교협의회 축하 예배에 이어 성탄트리 점등식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화순=서호령 기자



무안삼향읍 지사협, 연탄 나눔 봉사

무안군 삼향읍 지사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대한조선 탐재 팀 43명의 직원들과 함께 연탄 배달 나눔 행사를 가졌다.

이번 연탄배달 나눔 행사는 관내 주민들에게 후원받은 연탄 1,600장과 대한조선 탐재 팀으로부터 후원받은 연탄 1,000장 및 후원물품을 직접 저소득층 6세대에 전달하면서 안부를 살피는 시간이 됐다.

대한조선 유성환 팀장은 “이웃들에게 따뜻한 정을 베풀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졌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